

# 외국인 소유 국내토지 0.2%… 中 보유증가율 3년째 ↓

국토부, 공시지가 기준 30.1조원 전년 32.3조원 보다 6.8%p 줄어  
美, 전년比 4.3% ↑ … 52% 차지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39㎢로 전 국토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인 보유한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2%정도 증가했다. 다만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 증가율은 3년째 감소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 3890만㎡(239㎢)로 금액으로는 30조 1183억원(공시지가 기준)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 말의 32조3083억원 보다 6.8%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4년 6%, 2015년 9.6% 등 한때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돼 2년 연속 2.3%의 증가율에 그쳤다.

특히, 한때 사회적 문제로도 지적됐던 중국인의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4년 98.1%까지 치솟았지만 2015년 23.0%로 하락한 후 2016년에는 13.1%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1798만6000㎡로 2016년 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일본이 7.8%(1860만2000㎡), 중국 7.5%, 유럽 7.3%(1730만6000㎡)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4272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고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였다.

임야·농지 등이 1억5436만㎡(64.6%)로 가장 많고 공장용은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등이다.

소유자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55.6%)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외에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외국인 토지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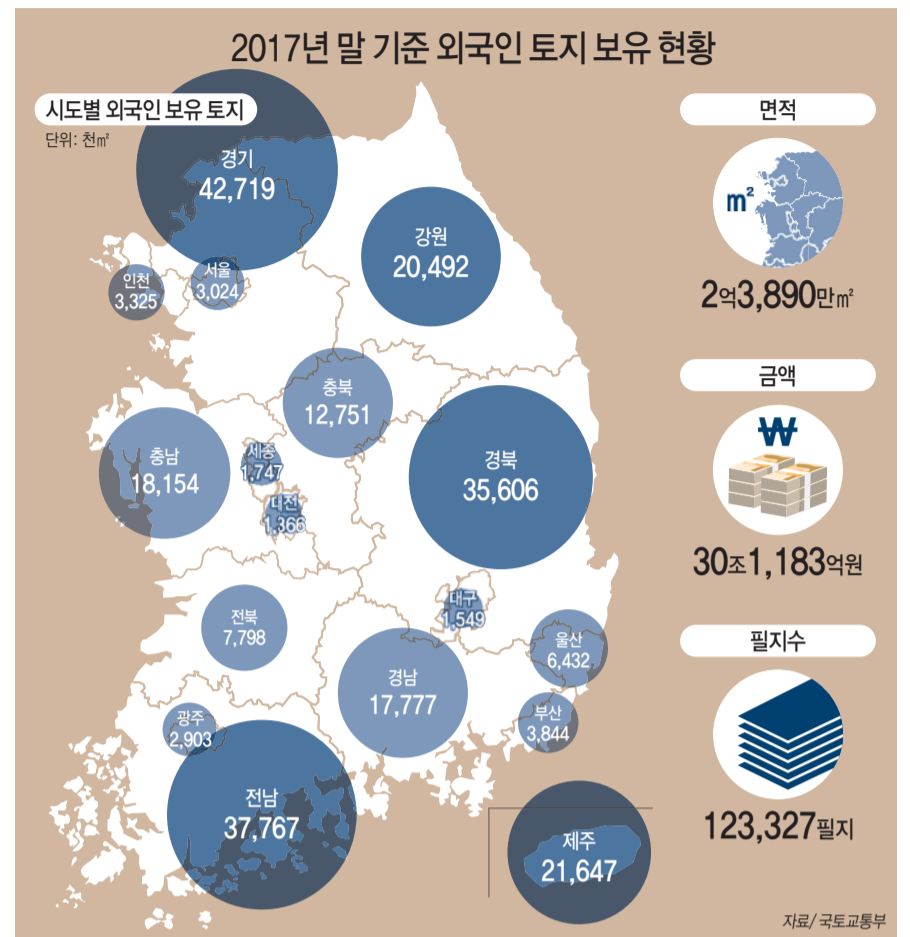
이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교포 등 외국인이 증여나 상속 등의 이유로 경기도 일대 임야 등을 취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에서는 외국인 토지가 15% 줄었다.

이는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의 공장용지(381만㎡)를 국내 기업인 아세아시멘트가 인수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중국 국적인 JS그룹이 골프장이던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를 취득해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보다 8.2% 늘었다. 제주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164만7천㎡로, 제주 전체 면적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고용부, 사회적기업 40곳 추가 선정

총 1937곳… 공정무역 등서 활동  
두팔로(주), 청년에 뮤지션 기회 지원  
(주)하이사이클, 업사이클 제품 제작

정부가 신규 사회적기업 40개소를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수가 1937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대중음악을 통한 사회공헌,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일자리 제공, 공정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두팔로(주) (Do Follow INC)는 다양한 대중음악 콘텐츠를 창작해 청년들에게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소셜미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열의가 있는 청년들로 쇼파이어그룹 ‘하모니이즈’를 결성해 ‘KPOP 진로콘서트’ 등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의학교’, ‘나는 배우다’ 등의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창작해 취약계층 아동 및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동 문화활동을 통해 이들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주)하이사이클은 환경문제 해결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변의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 가치를 입혀 다양한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기존 업사이클과는 차별화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커피재배 키트, 린넨천을 활용한 반려동물 용품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제품 제작 과정에서 시니어 클럽, 지역 자활센터,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소셜벤처의 성장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더스티치, (주)지혜의발 등 21개 기관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최신웅 기자

## 해양환경관리공단 명칭 ‘해양환경공단’ 변경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이 5월 1일부터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됐다.

공단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0월 기관 명칭 변경 내용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중심 공적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거듭 나겠다는 공단의 의지가 담겨있다.

공단은 지난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출범해 2008년 1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된 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단은 해양공간 관리, 해양미세플라스틱 측정 관리, 해양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다양한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양오염 대응에 있어서도 사후 조치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드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환경종합정보



해양환경공단 사옥 전경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열린혁신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갈 계획이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민 중심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해양환경공단이 되겠다”며 “해양환경 이슈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 ‘물벼락 갑질’ 조현민 경찰 출석… 폭행 등 혐의 조사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조 전 전무는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수 뿌린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도를 봤느냐’ ‘대한항공 총수 일가 사퇴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폭행 등)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당시

문제가 됐던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해왔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중단시켰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회유·협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중 기자 jaker@

## AI·구제역 종식… 예방차원 방역은 추진

이달 말까지 전국 일제소독 실시

정부가 1일자로 구제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돼지 구제역이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하지만 정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당분간 가축질병 관련 방역조치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AI와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재발 우려가 있어 이달 말 특별방역대책 기간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 일제소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AI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오리류와 메추리, 꿩 등 특수 가금 4579

개 농장과 철새도래지에 남아 있는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AI 검사를 진행한다.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달 23일까지 전국 돼지에 A형 구제역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제대로 접종됐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을 마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AI와 구제역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AI, 구제역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신웅 기자